

우수 교원이 이야기하는 좋은 강의 만들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같은 강의”



윤호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과목의 특성과 학습목표에 따라 강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좋은 강의의 기본 조건은 “학습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수강생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2

수업 소개와 수업 전략 및 특징(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부생리학과 의학용어”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어려운 의학용어를 암기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과목명은 단순히 보이지만 사실상 의학의 거의 전 범위를 다루게 됩니다. 고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지 않아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들도 많이 수강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암기해



Teaching
Plus

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수강생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수업에 열중하던 학생들도 학기 후반부로 갈수록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딱딱한 수업 내용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근육을 설명할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각 부위와 짝을 지어 이해도를 높이기도 하고, 영화·드라마의 장면을 따다가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학·과학 기사도 틈틈이 스캔해 두었다가 관련 단원의 수업 때 설명해 주고, 의학의 역사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적절히 버무려서 지루함을 덜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수업이 점점 TV 프로그램 “알쓸신잡”과 비슷해 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재미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학생들에 대한 평가(학점 부여 등)와 평가 결과(성적) 공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주 수업 시간에 10~15분 정도를 할애하여 지난주 수업 내용에 대한 쪽지시험을 치르고, 학기말에 그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에 반영합니다. 쪽지시험은 며칠 안에 채점을 해서, 그 결과를 학사관리시스템의 “학습관리”란에 전산 입력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도를 그때그때 알 수 있게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까지 복습 없이 수업을 듣기만 했을 때는 학생들이 한 학기 내내 흥미와 긴장감을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쪽지시험과 피드백을 활용했더니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 쪽지시험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게 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머리 속에 지식이 조금씩 쌓여 갈수록 수업 내용을 알아듣기가 점점 쉬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해부생리학과 의학용어”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교과서 한 권으로는 충분한 학습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자료를 추천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최대한 깔끔하게 요약해서 수업 전에 미리 배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잡다한 내용이 가득 담긴 프리젠테이션용 강의 자료 외에 별도의 요약된 강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필기 부담을 줄이고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방대한 범위와 내용 중 어디까지 설명해 주고 얼마나 학습하게 만들지도 늘 고민거리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강의 자료에 담아 배포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도를 살펴 보면서 강의 범위를 조절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내용은 자율학습에 맡기되 큰 부담은 주지 않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기초가 빈약한 학생들에게 어려운 의학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틈틈이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의학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말마다 의학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수업에 활용할 만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보다 매스컴에 나온 사진이나 도표가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소속된 학과의 수업이 아니어서 학생들과 별도의 상호작용을 할 기회는 없지만,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 주려고 노력합니다.

6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강의를 위해 고민하는 점 등)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지식 외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Teaching
Plus

7

추가적으로 신입교원을 위한 도움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의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우선 “뭋이 중헌지”를 잘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좋은 교수자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맡은 강의를 이 정도 수준에서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임무는 완수한 셈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사히 첫발을 떼고 나면 “임무 완수”에 그치지 말고 더 좋은 교수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PBL(Problem-Based Learning), TBL(Team-Based Learning), Action Learning, Flipped Learning 등의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자의 강의 자체도 점점 풍성해져야 합니다. 1시간 강의에 필요한 콘텐츠를 얼마나 풍부하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강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런 교수자가 학생들의 학습 방향에 대한 안내자 역할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해 놓고 보니 “너는?”이라는 화살이 날아올 것 같아 등에 식은땀이 나네요.

신입교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므로,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수 교원이 이야기하는 좋은 강의 만들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감하는 강의”



정기원 교수
약학과

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머리와 행동 속에 녹아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 스스로 내재화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강의가 있을까요?

2

수업 소개와 수업 전략 및 특징(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nowledge, Skills, Attitude (KSA)를 다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우선 Knowledge와 Skills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적수준과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강의교안을 준비하며, 현업에 도움이 되는 워크숍(시간이 한정된 Presentation 발표 및 Essay 작성)을 진



행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문학 내용을 공유하면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Attitude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3

학생들에 대한 평가(학점 부여 등)와 평가 결과(성적) 공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학생들은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강의 첫 시간에 안내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은 ECUS에 공개하고,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원할 경우 언제라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학생들의 지적역량 또는 관심분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만족하는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을 경우 5명 내지 10명의 조를 구성하고 사전 학습이 잘된 학생을 조장으로 선발하여 학습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수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조장이 메꿔주어 효과적인 강의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5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어떠한 질문이나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지도나 칭찬이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만나 상담 또는 격려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학생들과 교수와의 신뢰를 쌓게 하고, 더불어 보이지 않는 학습방해요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6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강의를 위해 고민하는 점 등)



교수자는 Navigator이자 Multiplier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문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역량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강의를 위해서 항상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 강의 내용이 뒤쳐져 있지 않는지, 학생들에게 직무능력 즉, KSAOs(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 지식, 기술, 능력, 기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반문하다보면 정체되지 않는 강의를 되는 것 같습니다.

7

추가적으로 신입교원을 위한 도움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입교원 때 새로운 커리어에 적응하면서 매 강의 때마다 교안을 만들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교안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강의 때마다 열심을 내어 하다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만큼의 보답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소 힘들더라도 화이팅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상처(누구한테도 말 못하는...ㅠㅠ)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이럴 땐 “교육은 내리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티브 잡스를 따라 한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듯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강의는 본인만이 알고 본인만이 만들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입교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교원이 이야기하는 좋은 강의 만들기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만족하는 강의”정미현 교수
보건의료산업학과

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만족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만족스러운 강의는 먼저 강의계획서에서 강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수업 중에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며, 평가가 공정하다고 느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만족스러운 강의라고 느끼는 경우는 개강 전 수업이 잘 설계되어 학기 중 학생들의 참여가 높고 활기찬 수업으로 진행되며, 학기 말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습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강의라면 정말 좋은 강의가 아닐까요?



2

수업 소개와 수업 전략 및 특징(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교과목들을 맡고 있어 대부분의 수업이 컴퓨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업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실습 환경이다 보니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 전체 PC에 대해 학습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마에스트로)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다음 카페, 카카오톡 단톡방,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복습이 용이하도록 대부분의 수업을 녹화(PC화면, 음성)하여 수업이 끝난 직후 바로 수업카페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학기 초에 사전설문조사를 통한 수업 방식, 평가 방법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고, 학기 중에 강의계획서에 언급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학생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에 대한 평가(학점 부여 등)와 평가 결과(성적) 공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는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평가 기준과 가산점 항목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중 출석은 ECUS의 학습관리에 입력하고, 퀴즈, 중간고사의 경우는 수업카페와 ECUS의 학습관리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기말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여 본인의 학점 근거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겹고 가기 싫은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학기 초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들을 포함시켜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학생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별 카톡 사용을 권장(저녁 10시 이후에는 메일 연락 규칙 적용)하고, 늦어지더라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SNS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면담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강의를 위해 고민하는 점 등)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순간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보이지 않고 단체로만 보이기 시작하면 수업이 기계적인 강의가 되고 말더군요.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려고도 노력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문득문득 아차 싶을 때도 있어 계속 노력해야 할 만큼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단정 짓기보다는 아직 꺼내지 않은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강의가 반복되다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도 계속 작성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7

추가적으로 신입교원을 위한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짐작하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 학생들의 생각이 의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니 간단한 ‘카카오톡 투표’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상관없이 교수들 간 수업 경험의 공유는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교수법 소모임이 아니더라도 편한 자리에서 좋은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 소개영상 결과 보고서

I. 2017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 소개 동영상 추진실적



촬영 대상 교원 수

촬영 과목 수

63명

100명



1학기

2학기

80개

22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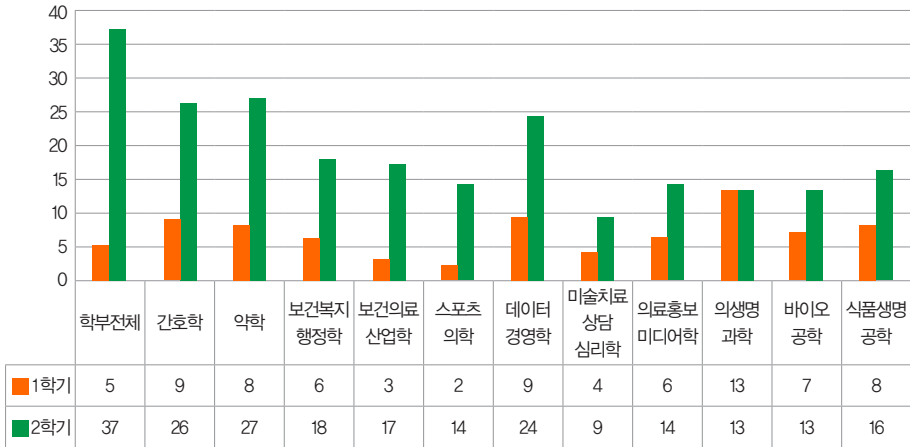
1학기

2학기



Teaching
Plus

학과별 촬영 과목 수



II. 2017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소개 동영상 제작 결과 보고

1. 영상 제작 결과

총 개설 과목 531개 중 촬영 제외 과목 303개를 제외한 228개 과목 촬영 완료 (달성률 100%)

2. 데이터 산출 개요

구분			강좌 수(개)
①	2017-2학기 개설 과목		531
②	촬영 제외 과목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23
③		동영상, 시험·실습과목	109
④		기타, 시간강사, 겸임교수	55
⑤		졸업논문 과목 제외	3
⑥		외국인 교수 과목	28
⑦		동일 과목(분반 등)	78
⑧		인턴십, 세미나 등	7
산식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 + \textcircled{6} + \textcircled{7} + \textcircled{8}) = 531 - (23 + 109 + 55 + 3 + 28 + 78 + 7) = 228$ $\therefore \text{최종 촬영대상 과목은 총 228개}$		

3. 학과별 촬영 강좌 수

구분	학과	촬영 강좌 수(개)
1	학부전체	37
2	간호대학	26
3	약학대학	27
4	보건복지행정학과	18
5	보건의료산업학과	17
6	스포츠의학과	14
7	데이터경영학과	24
8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9
9	의료홍보미디어학과	14
10	의생명과학과	13
11	바이오공학과	13
12	식품생명공학과	16
총 촬영 강좌 수(개)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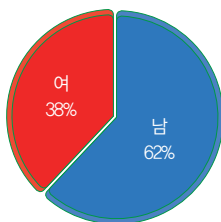
III. 2017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 소개 동영상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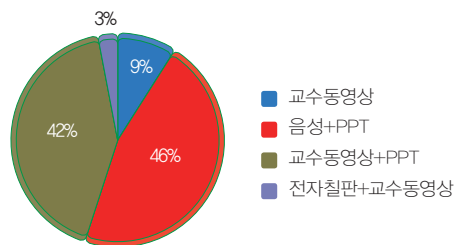
1. 교수자 대상(응답자: 32명)

1) 객관식 결과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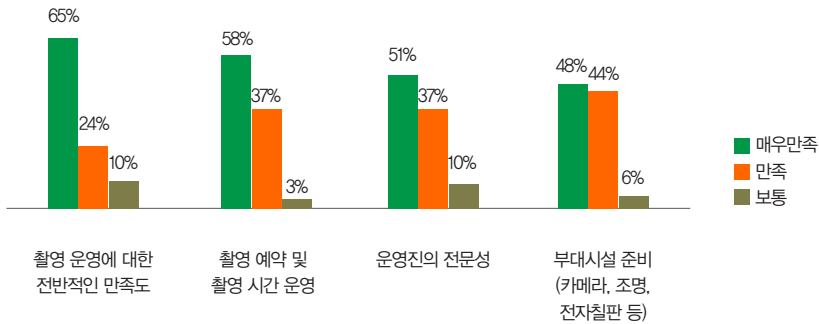
- 촬영하신 강의계획 소개 동영상의 형태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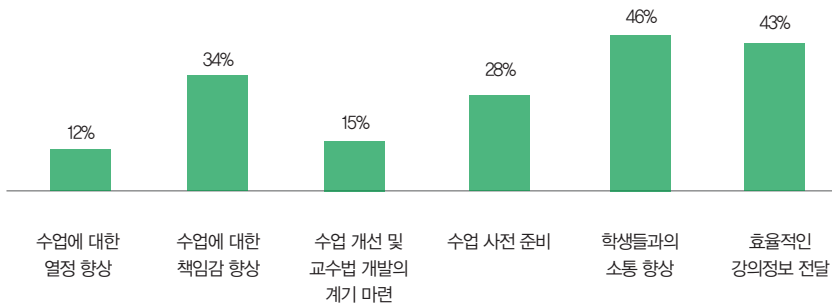
- 강의계획 소개 동영상 촬영의 행정적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는지요?

촬영의 행정적 운영에 대한 만족도



- 강의계획 소개 동영상 촬영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강의계획 소개 동영상 촬영의 장점



2) 서술식 결과

* 서술식 문항에서 결과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묶어서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내 용	
지난 학기대비 촬영에 대한 소감	구성이 단순화되어 좋았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촬영한 경험이 있다보니 이번 학기 강의소개 영상 촬영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촬영이어서 쉽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기 중 3~4차례 강의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수업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학기에는 여러 조교선생님들이 계셔서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한 분이 진행해 주시니 더 편안했습니다.
개선사항	촬영 과정에서 스크립트를 볼 수 있도록 맞은편에 모니터가 설치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촬영 환경은 양호하였고 특별한 개선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소개 영상이나 강의계획서나 효과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 실제 학생들도 강의소개 영상을 보고 해당 강의를 신청했다는 학생은 2-3명에 불과한 것 같다.
	예약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Youtube에 저장되는 관계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아쉽습니다.
	판교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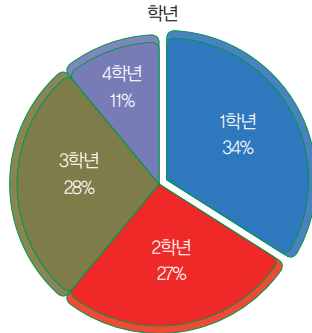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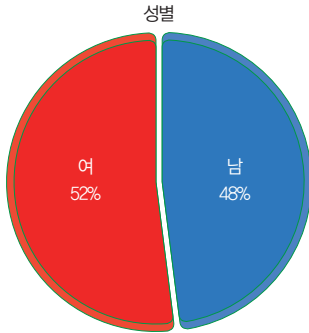
서술식 문항에서 드러나듯이 직전 학기에 촬영 경험이 있는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촬영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촬영 장비, 전산 예약 시스템 부재로 아쉬움을 드러낸 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향후 프롬퓨터 장비와 LMS를 도입하여 촬영 환경 및 전산 시스템을 보강하고 촬영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교수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보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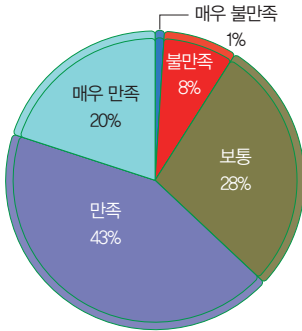
2. 학생 대상(응답자: 77명)

※ [붙임5] 강의계획서 소개 동영상 촬영 설문조사지(학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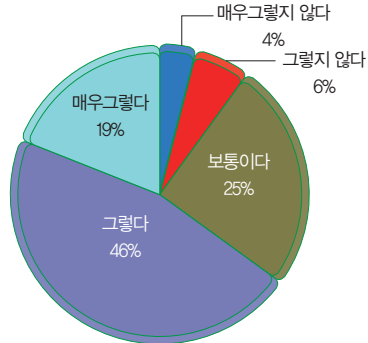
1) 객관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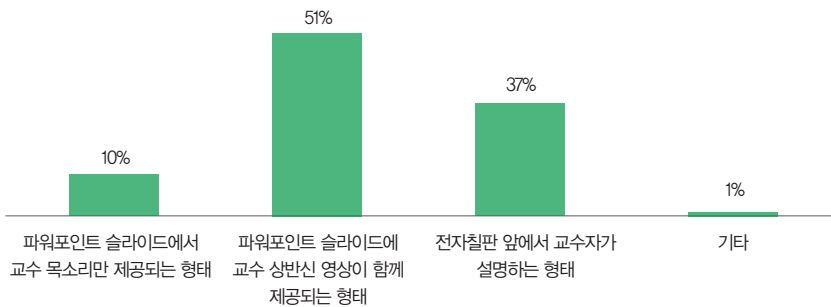
강의소개영상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강의소개영상이 수강신청 전 교과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의소개영상의 타입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



2) 서술식 결과

* 서술식 문항에서 결과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묶어서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내용	
강의계획 소개 영상 제공 소감	파워포인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교수님 얼굴이 같이 나오면서 신뢰도도 높아졌던 거 같다.
	개강 전에 교수님의 모습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고 본인이 수강한 강의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생긴다.
	교양의 경우 처음 보는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선이 집중된다. 배경이 파워포인트 화면이면서 교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수업하실지 알 수 있다.
	단순한 일방향적 수업의 형태가 아닌 학생과 교수님이 소통하는 수업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을 미리 영상으로 접하는것도 좋지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미리 느껴 볼수 있었고 실제 수업과 같아서 좋았다.
	교수님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강의계획서보다 이해하기 쉬웠다
	강의소개중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않고 설명해주시면서 교수님의 강의스타일을(목소리, 억양 등) 고려할 수 있었다
	슬라이드에 집중할 수 있고 부가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편하다
	전자칠판 영상의 경우 다른 영상에 비해 더욱 이해가 쉬운 것 같다.
요구사항 또는 개선사항	실제 수업 오티 느낌이 나서 거부감 없었고 보기 편하다.
	형식이나 틀에 너무 얽매어 소개하기보다는 교수님 각자의 원래 강의 방식대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실제 강의에서 교수님 성향을 미리 파악해서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PPT와 음성이나오는 영상 형태 보단 교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영상이 많이 제공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강의에 강의소개 영상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직접 들을 수 있는건 참 좋는데, 한정적인 강의에만 제공되어서 아쉬웠습니다.
	되도록 모든 과목에 대한 소개영상을 제공해주셨으면, 과목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강의계획서의 내용 이외에 강의정보를 추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술식 문항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강의계획 소개 영상을 통해 기존 강의계획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강의를 촬영되지 않은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으며,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다. 추후에 강의소개 영상 촬영을 확대하고 단순한 강의 계획서의 내용 소개 보다는 해당 강의의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다.



20 | 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http://chactl.cha.ac.kr>

